

주일 예배 11시

2017년 12월 31일(다섯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37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63번 다 함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 함께

기도 김성진 집사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489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 예수: 7. 진실한 증거의 힘(요한복음 9장 8-41절)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93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새해맞이 교회 모임(밤 10시 30분): 식사 후 기도회 성찬식을 가집니다.

- 1월 예배 순서 담당자

사회: 김성진 집사 기도: 하재혁 집사(7일), 김영자 권사(14일)

현윤경 집사(21일). 장연재 형제(28일)

-금주 읽을 성경: 시편 80-86편, 요한 1,2,3서 유다서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내가 원하는 진정한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 장, 2 장, 3 장, 4 장의 짧은 성서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온전된 성도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뜻깊어 보이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추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함께하는 마음으로 움직여 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께 매어 달리고자 힘써 가는 그 자세가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된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서고, 주님 안에서 관용 넘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해 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이런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자이심을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은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압니다.

눈 내리는 12월

하재혁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롯의 가족만이라도 구하려는  
애간장 녹는 한탄과  
그 성이 무너지는 아비규환 형상이  
아스라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 울림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렵기도 하곤 했습니다.

창문 밖 먼지 바람 일구는  
밀밭 언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골고다의 언덕에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봅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삭막했던  
밀밭 등성을 하얀 눈으로  
새 단장 합니다. 포근한 눈속을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그 빛 받고 피어 오르는  
눈 빛 아지랑이가 나의 눈과 귀를  
평화롭게 하면 소망을 들쳐내  
아지랑이 태워서 하늘로 올립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상처받고 있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밝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아도  
보면 편안한 해바라기 꽃처럼  
기쁨이 있고 속이 찬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 하나  
눈빛만 보아도 주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밀 바닥 인생에 어부인 베드로처럼  
인격에서 담대하고 주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세상을 지혜와 지식으로 살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를 한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립습니다.

12월에 눈 오는 날  
눈 내리듯이 오신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려고  
귀를 쫓긋 세웁니다.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2월 31일(52주) 31권-52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